

# 은행권 자율배상 절차 돌입... 평균 배상률 40%, 2조 전망

##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

7개 은행, 금감원 조정안 수용  
투자자 "전액 보상"... 불만 고조  
대규모 소송전 확산 가능성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 매한 7개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면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평균 배상률은 40%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분쟁조정과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ELS 배상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와 설명 등이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판매 유형에 따라 배상률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H지수



홍콩ELS피해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LS를 판매한 7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모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본배상 비율은 23~50%지만,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판매사의 불안전판매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선 자율배상이 평균 40% 안팎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부실(대면판매) 10%포인트(p)를 더한 값이다. 이들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중 올해 1~7월 만기를 맞는 액수는 약 10조 원이다. 이 중 절반은 손실이 났다고 가

정하고 배상비율 40%를 대입하면 은행권 총 배상액은 2조원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배상 방식 비율에 불만이 크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당시에서는 100% 배상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평균 배상률이 40%선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100% 배상을 결정했고, 지난 2021년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보상 받았다.

홍콩ELS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액에 대한 일괄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김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고위험 고난이도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객에게 판매

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객의 자기책임만 내세우고 있다"며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안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책임이 5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만족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약속했던 금감원이 은행 감싸기에 급급했기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배상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자율배상을 수용했지만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은행의 배상 비율에 만족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판매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일부 불안전판매가 확실한 경우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판매였다면 배상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떠오르는 한강벨트...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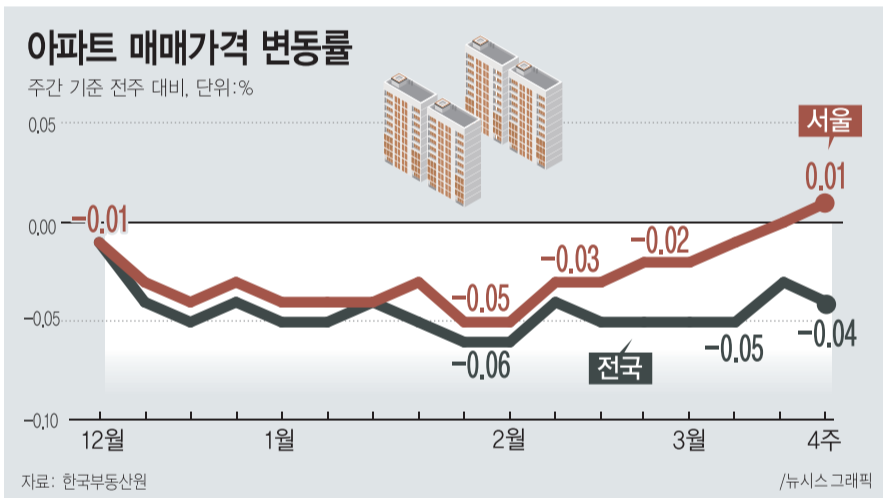
매매수급지수 87.5... 7주 연속 상승  
"급매 위주 거래, 수요부족 의견 주중"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7주 만에 상승 전환하며 주택 시장에 온기가 되는 모습이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7주 연속 상승하며 살아나는 분위기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0%) 대비 0.0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17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마포구(0.00%→0.12%)가 아현·대흥동, 광진구(0.00%→0.04%)는 구의동 주요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으로 전환됐다. 도봉구(-0.04%→-0.04%)는 쌍문·방학동 구축, 서대문구(0.02%→-0.03%)는 남가좌·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04%→0.



05%)가 잠실·가락·방이동 주요단지, 동작구(0.05%→0.04%)는 동작·사당·상도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강동구(0.02%→-0.02%)는 강일·암사동, 관악구(-0.05%→-0.03%)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희망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 이어지고 지역·단지별로 상승·하락이 혼재

돼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래미안파크스위트'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1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달 매매가격(11억1000만원) 대비

7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레이크팰리스'의 경우 전용면적 116㎡가 24억3000만원에서 25억3000만원으로 1개월 만에 1억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주 연속 상승했다.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으로 전주(86.6)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다"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던 매매가격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물건을 쌓여있는 가운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종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 1면 '덩치커진 인뱅...'서 계속

### 저금리·편의성 주요 지방은행 추월 전망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자금대출이 자리잡은 영향도 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를 출시한 이후 부동산 심리가 회복되며 지난해 말 주담대 잔액이 9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전년 동기(1조2000억원)와 비교해 8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주담대와 전월세보증금 대출 비중이 2022년말 20%에서 2023년말 40%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아직 주담대를 출시하지 않은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자금대출을 출시하며 이자이익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토스뱅크의 전월세자금대출잔액은 출시 3개월만에 4060억원이 늘었다.

### ◆인뱅·지방은행 금리경쟁 치열

업계 안팎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의 이자이익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환대출 서비스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담대, 전월세자금대출로 확대됐는데, 시간을 두고 금리가 낮고 플랫폼 이용이 편리한 인터넷은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DGB대구은행이 연 3.61%로 가장 낮았고, 카카오뱅크가 연 3.71%로 뒤를 이었다. BNK경남은행과 케이뱅크도 각각 연 3.80%, 연 3.81%를 기록해 금리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인터넷은행의 금리가 독보적으로 낮다. 케이뱅크가 연 3.62%로 가장 낮았고, 토스뱅크 연 3.70%, 카카오뱅크 연 3.71%를 기록했다. 지방은행의 평균금리가 연 4.25%인 것과 비교해 최대 0.63%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시작하고, 모바일 앱 접근성 또한 높아 대환대출 실행 가능 시기를 두고 갈아타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나유리 기자 yu115@

# "표준화, 국제인증으로 이어져... 경제적 잠재력 큰 분야"

## >> 1면 '표준화 경쟁...'서 계속

FDA와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규제 기관(NIEHS)의 시험법 개발 현황 소개와, 국내 동물대체시험 규제 적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식약처와 함께 OSI를 이끌고 있는 안전성 생균관대 생명물리학과 교수는 "팬데믹 때도 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키트를 쓰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활용하는 등 한국의 팬데믹 대응 기법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며 "한국이 오가노이드 제작·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을 리드한다면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화는 결국 국제 인증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모든 오가노이드는 물론 오가노이드 개발을 위한 장비, 시약 등의 모든 제품에 KS마크, CE 인증과 같은 '한국이 만든 국제 인증'이 붙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덧붙였다.

### ◆오가노이드 기준, 첫 ISO 등재 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역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손미영 생명연 줄기세포융합연구소 센터장이 주축이 돼 만든 '유전자 패널 기반 오가노이드 유사도 평가 시스템'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

가노이드가 실제 장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첫 시도다.

생명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유전체 분석(RNA 시퀀싱)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 특정 장기가 가지는 특이한 유전자 세트(Gene set)를 골라내 중요도와 기능성을 중심으로 그 유전자 세트가 얼마나 발현돼 있는지 알고리즘을 짠다. 이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제 인체 장기와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장기에 적용할 수 있다.

손 박사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생명연이 개발한 장(腸) 오가노이드의 유

사도가 75%, 미국팀이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는 45%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 표준화 절차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명연 손명진 박사는 O ECD 정기회의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간독성평가 시험법'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 때까지 국내 개발 OECD 시험 가이드라인은 총 3건이 채택됐지만 모두 기존 국제 시험법이 존재하는 미투(me too) 시험법이었다. 오가노이드 기반 간독성평가 시험법은 기존 시험법이 없이 신규로 제안하는 최초 가이드라인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